

제1항. 토뒤의 단어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쓴다.

- 례: -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필승의 보검이다.
- 하나에 하나를 합하면 더 큰 하나가 된다.
 - 두 대학생의 아름다운 소행
 - 온갖 새들이 찾아드는 숲
 - 전쟁시기 잘 싸운 로병부부
 - 아, 얼마나 아름다운 마을인가!
 - 옴의 법칙, 피타고라스의 정리
 - 저녁을 먹은 후에 보자.
 -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작업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.